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큰 시련, 큰 신앙

(시편 56:1-13)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다윗이 받은 말씀보다 더 포괄적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며 압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매일 하늘을 찌릅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땅을 헤매고 있는 탈북난민들, 동남아에서 돈을 벌러보겠다고 한국으로 온 노동자들, 희귀병에 걸린 아들이 세상에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죽여야겠다고 하는 아버지, 이들은 세상이 압제를 한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같은 인간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편 56편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4절).

다윗은 분명 큰 시련에 빠졌고, 또한 그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1. 큰 시련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는 놀로 피신했습니다. 이때의 일은 사무엘상 21-2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독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곳으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손에는 무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삼상 22장에 의하면 그가 가드 지방을 떠나 이돌람 동굴에 왔을 때 400명의 군사가 모여있지만 훗날 가드에 있었을 때에는 활활단신 다윗 혼자뿐이었습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수 년 전 다윗의 돌에 맞아 죽은 골리앗은 블레셋의 자랑이었고 영웅이었습니다. 원수의 고향에 간 다윗은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가드로 들어가는 다윗은 승전장군으로 뽐내며 입성하든가 아니면 심한 두려움과 절망감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다’ 한 것을 보면 절망 속에서 가드로 들어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피신 왔을 때 신하들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더라”(삼상 21:12). 다윗은 군사도 거느리지 않은 채 홀로 있을 뿐 아니라 정신병자에 거랑뱅이로 알고 아기스 왕은 그를 죽이려 하기 보다는 경멸하고 그를 그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시편 56편의 표제는 다윗이 당시 미친 체 하며 외롭게 피난생활 했던 당시 형편을 잘 설명해 줍니다.

2. 큰 신앙의 승리

다윗은 2, 10, 11절에서 합창을 연주합니다. 이것은 이 시의 핵심으로 두려움에 처한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강조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3절).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실함을 보지 못하였도다”(시 37:25)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환난 때에 오히려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환난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인간은 부패한 마음과 죄로 인해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4절).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당시 성경은 아마도 모세5경과 여호수아, 사사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일부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 백성을 향하신 뜻을 알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좋은 선물 중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다윗이 받은 말씀보다 더 포괄적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3. 큰 서약

시편 56:12-13절은 54편의 마지막 부분과 비슷하게 끝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12-13절은 하나님을 의지한 후 한 큰 서약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이 같은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12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본편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과 고독에 빠질 때 하나님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로 비침을 받을 때 그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큰 시련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신앙으로 승리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2007 홍해작전 이번 주 - 부흥사경회로

11일(월)-16일(토) 6일간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강사: 김성봉 목사

국가와 교회,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주님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2007년 홍해작전 이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간은 기도사경회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함께 회개 하고 기도하며 김성봉 목사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이번 주는 지난 주간동

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부흥사경회로 모인다.

김성봉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기다린다.

모든 성도들이 2007 홍해작전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의 대명(大命)을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2007 홍해작전 3부, 성경통독사경회 이렇게 진행된다

17일(주)-25일(월)까지 본당에서

6월17일(주)부터 6월25일(월)까지 계속되는 3부 성경통독사경회는 본 교회에서 해마다 설날과 추석에 실시하고 있는 성경통독사경회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사도신경 고백과 홍해작전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한 후 곧바로 통독에 들어가고 끝날 때는 주기도로 마친다. 통독범위는 창세기 1장부터 매일 40쪽씩 통독한다.

홍해작전이 끝난 후에도 성경통독사경회는 7월 31일까지 계속되는데, 이 기간에는 새벽기도회가 5시30분부터 6시까지 계속되므로 매일 18쪽씩 통독하게 된다. 그리하여 7월 31일에는 성경통독사경회

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사야서 21장까지 통독하게 된다.

이것은 본 교회에서 연초에 배부한 <일 년 통독 성경통독카드>의 통독범위와 일치하므로 이때부터 개인적으로 매일 통독을 계속하면 모든 성도들이 연말에 본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성경 일 천 독 대장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2007 홍해작전을 통하여 <성경 일 천 독 대장정>에 아직 시작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출발의 결단과 이미 진행 중인 자는 2독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제1회 서울문예 백일장 심사결과 발표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된 제1회 서울문예 백일장 심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백일장은 1편의 우수작과 3편의佳作, 3편의 입선작이 선정되었다.

입상한 이들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되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식을 갖는다. 제 2회 백일장에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본인의 신앙생활을 더욱 이룸답게 할 많은 작품들이 문화의 기독교화를 이루도록 기도한다.

입상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우수작: 안성희 집사(9교구)
- 佳作: 윤숙희 권사(6교구), 이기숙 집사(10교구), 한상준 집사(11교구)
- 입선: 송행희 성도(3교구), 유을상 집사(6교구), 이승문 성도(12교구)

여름철 목사복(셔츠) 착용만으로

무더운 하절기 동안 모든 교역자들은 반팔 상의 목사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정장을 대신한다.

교역자들은 반팔상의 목사제복을 착용하고 새벽기도회, 남녀선교회 월례회, 심방예배, 금요기도회 등을 인도할 수 있다.

2007 홍해작전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최양진 집사(3교구)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란 주제로 2007년 홍해작전 개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6월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새벽을 깨우며 엄마, 아빠 품에 안긴 어린 아기로부터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온가족이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너기 위해 원근각처에서 앞 다투어 예배당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에 쫓기며 앞에 홍해가 가로놓인 절박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집중적으로 말씀 받고 힘써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심령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번민하고 절망케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홍해입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너갈 수 있으며 승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결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애굽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빠져 죽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믿음의 근거 없이 하는 행동은 멸망을 초래합니다.

모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이 사회에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사경회, 부흥사경회, 성경통독사경회를 통하여 홍해작전 7대 기도제목을 이루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작전인 홍해작전에 우리 모두 승리하셔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1회 서울

■ 우수작

변화

안성의 집사(9교구)



어제는 회색빛 나무가
오늘은 푸르름으로 단장했다.

내면에 푸르름을 잠재우고
계절 따라 피는 "꽃 보며

화사함을 안겨주는 "꽃처럼

나는 무엇으로
내일을 맞이할까

"꽃처럼.

주님의 향기를 품은
때에 맞는 사랑이 되고 싶다.

■ 가작

단층 (斷層)

윤숙희 권사(6교구)



까마득한 날에
쇠뜨기 돌아나고
나닌 한(恨)
못내 겨워
화석(化石)으로
드러났다

다시
큰 강물 흘러
조상 새 날고
숲이 무성하면
먼 벌판
달려가
숨이 닿도록
안으리라

찬연한
아침에

당선 소감

글을 쓴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 사랑이 부족하기에 더욱 많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글로 담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서툰 시어(詩語)들이지만 생각날 때마다 일기를 쓰듯이 시를 써 보았습니다. 시를 쓰는 동안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내 자신과 자연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으며 그 시간이 저에게 매우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서툰 글 솜씨에 과분한 상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희 집사 -

심사평

나소정 (편집위원, 문학 박사)

서울교회 순례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담긴 문예창작을 장려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문화의 기독교화를 이루고자 제 1회 서울문예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이에 1편의 우수작과 3편의 가작, 3편의 입선작을 내놓게 되었다.

속고 끝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안성희 집사의 창작시 <변화>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하는 신앙인의 삶을 계절의 변화 속에 생장과

소멸을 반복하는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한 수작이다. 어제의 회색빛 나무가 오늘은 푸르름으로 새단장을 하고 그 푸르름마저 내려놓을 때 내일의 "꽃 피우듯이, "때에 맞는 사랑"과 "주님의 향기"를 담은 믿음의 "꽃 피우길 소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담백하고 정제된 시어로 형상화 해내고 있으며, 함께 출품한 <만남>, <방향> 등의 시편들 역시 고른 수준과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시상을 응축시키는 힘과 제재와 주제를 연결하는 감각이 돋보여 우수작으로 선정케 되었다.

한편, 방향을 거듭했던 자녀들을 키우며 인고의 세월을 사셨던 어머니의 생애를 담담한 필치로 담은 이기숙 집사의 신앙수필 <어머니>, 지상에 드러

서울교회 순례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담긴 문화의 기독교화를 이루고자 제 1회 서울문예

단층(斷層)의 오랜 과거와 다가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본 윤숙희 권사의 창작시 <단층>, 한상준 집사의 창작시 <빛소리>, 위 세 편이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희생으로 가족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삶을 딸의 시점으로 회고한 <어머니>는 한 알의 밀알처럼 고스란히 자신을 내어준 어머니를 통해 가족들이 변화 받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과 이제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새롭게 자신을 발견해 가고 있는

문예 백일장

■ 가작

빛소리

한상준 집사(11교구)



촉촉이 내리는
가는 빛소리..
여민 가슴에
스미는 성령의 소리..

서산에 멈춘
저녁 노을은
주님께서 비취주는
성령의 등불..

황혼녘에
구슬피 울부짖는
소쩍새 소리는
주님을 향한
그윽한 찬양..

■ 가작

어머니

이기숙 집사 (10교구)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한 달이 넘
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어
머니가 그리워 남모르게 가슴으로
울고 있습니다. 아니 통곡에 가깝습
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어머니이지만
제 가슴 속엔 특별한 어머니였기에 쉽게 잊을 수 없
는데 세상 사람들은 잊으라고 합니다.

그리 평탄치 않았던 세월을 뒤로하신 채 그토록
'불쌍하다 내 자식들' 하시며 요단강을 어찌 건너셨
을까요? 뒤를 돌아보고, 뒤를 또 돌아보고 천사의 손
에 이끌리어 눈물을 흘리시며, 흠치며 떠나셨을 어머
니... 결코 효도하지 못했던 못난 자식들.

아버지부터 술을 좋아하시고, 아예 술독에 빠져
지냈던 아들 삼형제... 알콜중독자... 그로 인하여 정신
질환까지 앓아야 했고, 정신병원까지 출입해야 했던
큰아들과 막내아들. 그 가운데서 수모와 고통을 견디
신 어머니...

중략

당신도 멀쩡하지 못한 채 큰아들, 막내아들 뒷바
라지에 힘겨워 하시면서도 어떻게 그리도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지, 그 작은 몸에서... 그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닌 어머니의 힘이셨습니다. 4월의 벚
꽃이 풍성한 자태를 뽐내는 계절, 목련과 철쭉, 개나
리, 무척이나 꽃무릇을 좋아하시던 어머니. 그 중에
서도 6월의 장미꽃을 좋아하시던 어머니... 아름다운

중략

꽃을 못보시게 되었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천국에
서 이 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꽃을 보셨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나는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던 친척들 입에서 주님을 영접하
겠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장으로 했
더니 보이지 않게 전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난폭했던 큰동생, 둘째, 막내까지 잠잠하게 순응
했고, 막내는 이미 교회에 나가고 있었지만 둘째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는 가끔 나의 주 아버지께 질문을 해보기도 했
습니다. "과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저
를 사랑하십니까?" 믿지 못할 일이지만 어느 날 길을
건다가 내 가슴 가까이 영으로 화답하셨던 주님!
"너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많구나! 내가
너를 조목조목 쓸 것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어머니 대신 십자
가를 짊어져야 하는 아버지, 동생들...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지만 저는 다들
것 같습니다. 조건적 사랑, 정신적 사랑, 믿음생활. 앞
으로 어머니를 의지하지 않고 홀로서기와 어떻게 살
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동안 태
신자 명단에 넣기도 부끄러웠던 큰동생, 조금은 정신
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엔 기도하면서 성
경일독에 도전했습니다.

생략

문예창작을 장려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화자의 이야기를 교차시키며, 육신 뿐 아니라 믿음과
사랑도 날아주신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까지 "미안해, 내 딸"이라는 말을 남기고 가신 어머
니를 추억하고 있는 아름다운 글이다.

지상에 드러난 단층(斷層)의 오랜 과거와 다가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본 윤숙희 권사의 창작시 <단층>
은 제재를 다루는 능숙한 솜씨와 적확하고 간결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비록 나뉘어 솟은 단층일
지라도 시간의 선조성을 통과하며 미구에 다시금 먼
별판과 조우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화자의 의지
적 소망이 잘 드러난 글이다.

대지를 적시는 빛소리와 서산의 노을, 황
혼녘의 소쩍새 소리를 각각 영혼을 적시는
성령의 소리, 심령을 비추는 등불, 주님을
향한 찬양에 비유한 한상준 집사의 창작시

<빛소리>는 자연 속에 깃들여 있는 섭리를 발견하
고 이를 내면화하는 시적 화자의 일관된 고백이 안정
적인 구성으로 알맞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글이다.

이 외에도 입선작으로, 짧은 날의 방황과 실패를
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 은혜를 고백한 유을
상 집사의 간증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송
행희 성도의 생활수필 <탈고되지 않은 이야기>는
흑인 혼혈아였던 친구 순열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
였던 산부인과 의사택에 입양되어 사랑과 희생으로
양육되는 모습을 오래 간직해 온 필자의 추억담이다.

유난히 검었던 순열이의 손을 맞잡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던 교회의 종소리를 향해 나아가던 순열 가족의
모습을 정겨운 필체로 묘사한 솜씨가 인상적인 글이
다. 절망과 원망으로 얼룩진 세상살이에서 벗어나 용
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은혜를 노래한 이승문
성도의 창작시 <겨울 속의 자아상> 세 편이 선정되
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진솔한 정성이 가득
담긴 글들로 문예 백일장에 참가해준 모든 성도님들
께 감사드립니다. (*)

심사 위원

정수길 목사, 정병무 장로, 나소정 선생, 순례자 편집위원



2007 홍해작전

주여,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2007년 홍해작전은 개전의 호각이 울리는 동시에 승리의 불꽃으로 축포를 쏘아올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따라 우리 이종운 목사님을 선두로 영아부에서 장년5부에 이르기까지, 평신도에서 목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발의 신을 벗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신을 벗고 돌아온 것처럼 서울 교회 새벽은 무릎 꿇은 맨발의 사람들로 가득했다.

1907년 평양의 성령 대 부흥운동이 이 땅에, 우리민족 가슴에 다시 불타오르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 때에 새벽을 살려고 하는 서울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성령의 새 바람은 온 민족가슴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지금도 주님을 향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시험으로 도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지금 이야말로 민족적으로 교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 일발 앞에 놓여있는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민족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홍해작전 1부는, 6월 6- 10일까지 기도사경회로 김정복 목사님이 강사로 나서서 “주여!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눅11:1)를 주제로 깊고 깊은 홍해의 새벽을 힘차게 열었다.

기도와 말씀으로 진군하는 서울교회 새벽은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과 기도의 방법, 기도에 관한 가르침, 제자들의 기도생활과



**예수님을 본받아
땀방울이 피 방울이 되게 기도하여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땀방울이 피 방울이 되게 기도하여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
신동기(편집부)

예수님의 기도의 명령으로 성경적 기도를 바로 배우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기도 사경회다.

김정복 목사님께서서는 미국 예본교회를 담임하셨으며 22년 동안 기도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세계를 가슴에 품고 40개국을 다니시며 기도학교를 세우시느라 영하30도의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영상40도가 넘는 아프리카를 넘나드시는 우주적인 기도의 철인이시다.

기도 학교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 외에도 주옥 같은 7권의 기도에 관한 저서들을 집필하셨다.

기도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김정복 목사님은 오늘도 새벽을 사는 홍해작전 군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들도 겹세마네 동산



홍해작전 사행시 공모

홍해작전 본부에서는 사행시를 공모한다. 마감은 6월 25일 새벽까지이며 풍성한 상품이 주어진다. 당선자 발표는 7월 1일 순례자에 게재되며 승전 감사예배 시에 시상한다.



